

# 10.27법난위 정상화 목소리 높아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 석탑, 그대

이기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듯이  
 긴 세월, 몸매 고운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  
 천년을 기다려도  
 아직 기다림이 남았는지  
 그녀는 삼백여년의 낮과 밤을 누굴 기다려  
 오늘도 먼 곳을 바라본다  
 여기, 의성군 금성면 탑리  
 눈썹과 아이와 매무새를 단장한 신라 여인이여  
 단순호치는 아니어도 그의 어깨와 유방과 둘레는 꽃답다  
 구름이 오면 구름과 벗하고  
 바람이 오면 바람과 순레잡기하는  
 아리따운 그대여  
 무수한 낮과 밤이 그대를 스쳐도  
 늙는 것은 세월뿐, 아직도 청 이 그대  
 옥이 부딪는 소리같이 낙랑한 목청  
 나는 듣는가 혹은 듣지 못하는가  
 맑은 날 기려 내 그대를 맞노니  
 이미 가너린 한 몸으로 역사가 된 그대  
 손으로 만지면 다수운 케온이 흐를  
 석탑, 그대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이기철 시인은... 경남 거창 출생. 197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등.

### 조계종중앙종회 정책질의 '10.27법난위' 관련 의제 집중

지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10.27법난위 피해자 명예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제191회 임시회에서 종회위원들은 10.27법난위피해자 명예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이어갔다.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은 "총무부장이 당연직 위원에 취임해야 하고, 관례적으로 위원장에 임명됐다"며 "전임 총무부장이 퇴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고 현 총무부장도 의견만 교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호 스님은 "10.27법난위심위에 현역 군인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으며, 제정 스님도 위원회 운영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범광 스님은 "현직 총무부장과 사회부장이 민간위원에 참여하고 총무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지만, 위원 해촉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며 난항을 겪었다"며 "종단은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 총무부장 지현 스님을 추천하고 위원장 직을 인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법률 개정, 지원단 인적 구성의 문제, 피해자 심의 지연 등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며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인만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위원장 지현 스님으로 교체 내년 6월 만료 연장에 주력 정상화 촉구 결의문도 채택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10.27법난위 피해자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10.27법난위위원회는 직원의 절반이 현역군인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는 국방부가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발족 초기부터 사전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 여부를 심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4년 9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는 "국방부가 위원회에 파견한 지원단이 10.27법난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법난을 축소하고



9월 18-19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191회 임시회에서는 10.27 법난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원 스님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박재완 기자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10.27법난위 실체적 진실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피해 스님과 단체의 명예도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10.27법난위위원회에서 비역을 포함한 군인을 즉시 철수시킬 것 △국정조사 실시 △모든 피해자가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도록 △10.27법난위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이번 회기 간 각종 법안들을 의결했다. 특히 미등록 사실 사안 창건주 은사로 인해 교육과 법계에

불이익을 받는 도제를 구제하기 위한 승려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성과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미등록 사실 사안 창건주의 도제는 사승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원로회의 종헌 인준 거부로 190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항을 원 위치로 전환하는 선거법,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교육법, 포교법, 후계원법, 종무원법, 법규위원회법 개정 번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제로 규정했던 각 교역직 인사 자격이 다시 원 상태로 복원됐다.

한편, 모든 안건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회기 일정을 단축하고 9월 19일 폐회했다. 신종일 기자 mt0719@hyunbul.com

## “비구니 참종권 확대 힘쓸 것”

###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연구회' 발족

#### 초대회장 일운 스님 선출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정립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했다.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연구회는 9월 19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장으로는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이 선임됐으며, 총무에는 지홍 스님, 감사에는 정운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비구니의원 연구회 초대회장 일운 스님

은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들은 적극적인 종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했다"며 "비구니 승가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심을 실현하고 실천해 소통과 화합의 진취적인 승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비구니의원 연구회는 ▷비구니 승가의 올바른 위상 정립 관련 사안 연구 및 조사 활동 ▷비구니 의원 전문성, 자질 향상 ▷재가여성불자들이 실행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스님들은 9월 19일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 43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회향

### 조계종교육원, 20일 직지사서

조계종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0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 제4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법회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수계 교육 유나 도일 스님을 비롯한 각 율학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에서 교수사와 습의사스님들이 참석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회향사와 차사를 통해 사미, 사미니 스님들에게 올바른 수행자로 성장해



조계종 교육원은 9월 20일 직지사서 제43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회향식을 봉행 했다.

주길 당부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남행자 78명, 여행자 30명이 사미, 사미니 수계를 받았다. 신종일 기자

## 춘천BBS 10주년 음악회... 속초 중계소 개국

춘천불교방송은 개국 10주년(11월1일)을 앞두고 10월13일 속초와 양양, 고성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속초중계소(FM 93.5MHz)를 개국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춘천불교방송은 중계소 개국일인 10월 1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설악산 소공원에서 방송국 개국 10주년 및 속초중계소 개국을 축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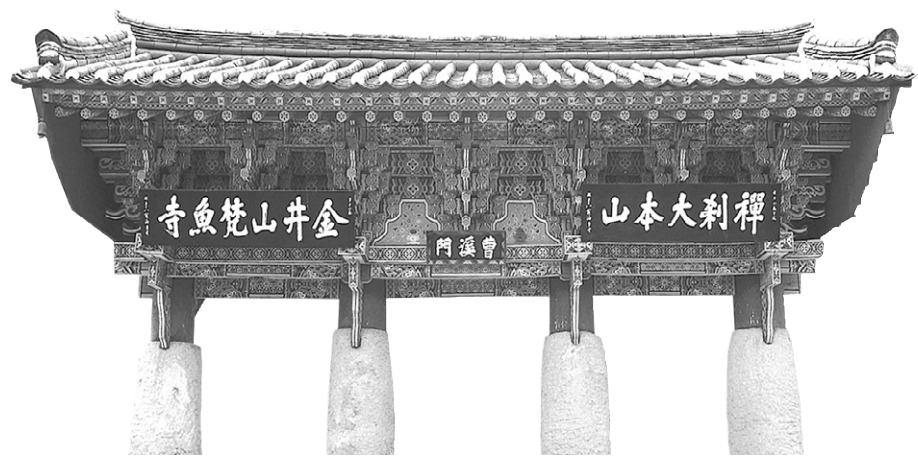
기념식과 산사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춘천불교방송사장 범경 우송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홍사 주지)을 비롯한 교계인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채용생 속초시장 등 초청인사가 참석하며, 음악회에는 정태춘과 박은옥 등이 출연한다. 김주익 기자

#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 경원(經院) 개설

## 불기 2556년 동안거결제 경원 대중모집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律은 부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禪·敎·律의 3개의 다리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불교라는 큰 숲을 2600여년 동안 떠받쳐 왔으며, 한국불교의 저변에 면면히 흐르는 통섭과 융합의 문화는 定慧雙修와 禪敎不二를 통하여 17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禪院의 결제와 더불어 經院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불법 수례의 두 바퀴가 될 것이고, 불교 새의 양 날개가 될 것입니다. 금번 범어사에서는 동산 경원을 개설하고 매 안거기간마다 단일 경전강독을 원칙으로 경전 한편을 선택하여 그에 정통한 법사스님을 모시고 결제기간 중 수선실참과 경학연구에 매진할 경원 대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2년도 동안거 경원 과정 안내



- 연찬과목: 선문찰요
- 교수사: 홍선, 무비, 지오, 용학 외 초빙교수
- 기간: 불기2556(2012)년 동안거 (2012년 11월 28일 ~ 2013년 2월 24일)
- 모집인원: 안거학인 00명
- 용사자격: 법납 5년 이상의 비구
- 제출서류:
  - 입방원서(본원 소정양식) ..... 1부
  - 수행이력서 ..... 1부
  - 승려증 사본 ..... 1부
  -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1부
  -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 ..... 3매

- 원서교부: 범어사 동산 경원, 범어사종무소,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 원서접수: 범어사 종무소
- 접수기간: 2012년 10월 29일(월) ~ 11월 1일(목) (음력 9월 15일 ~ 18일)
- 전형방법: 사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 전형일시: 2012년 11월 2일(금) 오후 2시 (음력 9월 19일)
- 문의: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우) 609-8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 범어사 동산 경원 원장 무비